

성경 예언 해설집 <14화>

다윗

다윗은 난세(亂世)에 태어나 일생을 쫓고 쫓기면서 살았다. 다윗은 손에서 무기가 떠날 날이 없을 정도로 피 흘리는 싸움을 계속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전심으로 신봉하였다.

다윗의 신앙 고백서인 시편의 내용은 모든 원수를 여호와가 갚아 주었다고 증거하고 자기 자손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하여 여호와와 큰 뜻을 이룰 것으로 믿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할 때 나단은 왕을 엄하게 징계하였다. 나단 선지자는 종교적인 역할보다 국가에 관여하여 왕의 자문 역할도 하고 왕궁에 출입하면서 왕을 보필하였다. 왕의 불의를 지적하고 충고한 사람은 나단뿐이다.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 나단은 계시를 받고 왕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으로 성전을 건축할 평화의 사람이 되지 못하니 공사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고 전하였다.

유대교와 예수교가 다윗과 솔로몬을 거족적으로 숭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여호와와 절대적 섭리로 왕국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여 제정일치의 신성한 나라를 세움으로써 흠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단이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전하기를 "당신을 양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당신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로 왕위를 계승하여 영원토록

이르게 된다"고 말할 때에 다윗은 황송하여 여호와께 고하기를 "나와 나의 집안은 비천한데 종으로 하여금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성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언약하였다.(삼하 7장)

나단은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였으나 나단의 말은 진실이 될 수 없으니 천명 이상 왕비를 거느린 솔로몬의 음행과, 왕비들도 이방 신을 섬기게 하므로 유다 왕국의 운명은 끝이 났으니 왕국이 영원하다는 나단의 말은 거짓말이 되었다.(왕상 12장, 대하 10장)

통일 왕국은 80년간 간신히 유지되다가 솔로몬의 죽음과 동시에 끝났다. 10지파는 왕국을 배반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여 신생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하게 되니 유다 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유지하면서 명맥을 이어내려가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였다.(왕하 25장)

왕국이 망하였으나 근본 뿌리는 남아있어 왕국의 재건과 영광의 날이 온다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하므로 유대교가 시온의 영광,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며, 예수교는 예수가 와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온다고 믿고 있다.

왕국의 멸망을 슬퍼한 선지자들은 왕국을 흠모하는 애국심과 성전의 재건을 갈구하는 신앙심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흠모하여 여러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영광의 날이 온다고 예언하였으나 그들은 여호와와의 원대한 경륜을 알지 못하였다. 육적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승리자 구세주가 곧 시온이요 예

루살렘이니 이사가가 예언한 말씀 가운데 동방 한반도에서 열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온다고 말하였다.(사 41장)

또한 광야와 사막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곳에 거룩한 길이 있어 구속함을 받은 자가 영광을 누리다고(사 35장, 40장) 하였으나 지금까지 광야와 사막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심령 상태에만 생각하였으나 이간자가 오셔서 당신이 역사하는 소사(素砂: 흰돌)가 사막(백사白砂)이라고 밝히므로 입증되었다.

예수교 경전에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마 1:1), 유대인의 왕으로(마 2:2) 주장하고 있다. 빌라도 법정에서도 예수는 다윗의 왕통을 계승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증명하므로 빌라도 재판장은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반역자로 생각하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처형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써서 붙였다.(마 27:37)

다윗 왕에 관하여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교 경전인 신약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윗이라는 뿌리에서 썩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으로 기록하여 인류 대다수가 헛되이 예수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불가사의는 예수의 부활 승천 재림이니 예수의 제자 시대에 결정적으로 재림한다고 신약에 명시하였으나 지금까지 소식이 없으니 죽은 예수는 다시 올 수 없는 것이다.

다윗의 글(시편)을 유대교와 예수교가 해석을 달리하고 서로 이단이라고 대립하고 있으나 지금 실로가 오셨으니 유다의 활(笏)의 권세는 끝이 난 것이다.(창

49:10) 예수교가 다윗을 최고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였다고 믿기 때문이다.(시 16장, 110장)

또한 요한이 기록한 글(계 5:4-5) 가운데 인(印)을 때는 권세와 이간자의 뿌리를 다윗으로 해석을 하고 또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사자(使者)로도 해석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으니 성경을 억지로 풀면 망한다는 말씀이 저들에게 응하는 것이다.

이사야

이사야는 군왕을 지도한 정치가이자 예언자이다. 여러 선지자의 예언을 종합하여도 이사야 한 사람의 예언을 따르지 못하였다. 다른 선지자의 글보다 문체와 문장이 정교하고 고상하여 만민이 탐독하였다.

기간: BC 760년~700년(60년). 장소: 유다 예루살렘. 이사야 시대 국왕: 웃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아. 예언 내용: 1.유다 왕국의 미래상 2.세계의 미래상 3.한반도의 미래상

중동 지방을 정복한 앗시리아 강대국이 남방으로 진군하여 BC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을 점령하고 남쪽 유다 왕국을 점령하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강요할 때 히스기아 왕은 이사야 선지의 지도와 후원으로 신앙의 힘을 얻어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성경 본문에는 전사가 나타나 앗시리아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사체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의학적 견지에서 본다면 장기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중에 발생한 전염병이 맹위를 떨치니 대다수 군사가 사망하여 전의를 잃고 본국으로 퇴각한 것이다.(왕하 18장-19장)

이사야는 종교적 견지에서 보면 선지자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희구하는 절세의 신앙인이 되고 정치적 견지에서 보면 국가의 정래를 경영한 경제가(經世家)로 유대 왕국이 세계를 지도하는 시온(예루살렘)의 영광을 기대한 사람이다.(사 2장, 9장, 11장을 중심으로)

성경 본문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사야는 당시 왕들의 전기(傳記)도 썼다고 외경은 말하고 있다. 이사야의 절대적인 활동으로 히스기아 왕에게 신념과 용기를 주었으니 왕은 이사야 선지를 하나님같이 의지하였다. 당시 앗시리아군에게 굴복하였다면 이스라엘 왕국과 함께 유다 왕국도 망하였을 것이다. 왕국은 1백20년간 더 유지되다가 신흥국인 바벨론에게 정복되었다.

히스기아 왕은 이사야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였으나 왕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른 후 부왕이 제거한 이방 신앙을 재건하고 우상을 광신하면서 여호와를 배반하니 왕에게 충고하는 충신을 모두 죽였다. 이사야 선지자로 90세 가까운 고령에 목숨을 걸고 왕을 책망하다가 나무 관에 넣어 톱으로 쳐서 무참하게 죽였다고 외경은 전한다.(왕하 21장 참조)

예루살렘을 만민의 도성으로 예언

본 문(사 2:2-4)

말일(末日)에 여호와와 전(殿)의 산(山)

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위에 뛰어나리니 만방(萬邦)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道)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列邦)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해설

본문 말씀은 유대교 시온주의 사상의 근본이다. 모세의 법통을 계승한 유대교가 3천 년간 수난을 당하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쫓기면서도 시온(예루살렘)의 영광의 날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면서 이방인과 싸워왔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추방하는 싸움을 성전(聖戰)이라고 확신한다.

끝날에 만민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것은 메시아가 출현했을 때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함은 만민의 구세주가 임하였다는 말씀이다. 위의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하면 유대교의 사상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이 예루살렘에서 실현되지 못할 원인이 있으니 첫째, 예루살렘을 두고 싸우는 것은 뿌리 깊은 적대감 때문이다.* - (다음호에 계속)

처승도

미륵부처님의 하강(下降)을 의미하는 첨성대와 수미산정(須彌山井) 그리고 증일아함경과 격암유록에서 알려주는 인류의 구원자에 대해서

1면에 이어서

西氣東來白虎運(서기동래백호운)에靑林道士(청림도사)나오시고木兔再生靈姓(목토재생성성)으로血流通中(혈류도중) 우리聖師(성사)鷄龍三月震天(계룡삼월진천강)에三碧真人(삼벽진인)나오시고金鳩木兔雙弓理(금구목토쌍궁리)로

때 되었네. 중천운이 들어 신선의 운이 음에 따라 천상의 여러 선인들이 세상에 나오느니라. 선운은 중천운이며 선도는 유불선 합일의 선도이다. 삼팔 목운으로부터 나온 청림도사(정도령)의 기운을 받아 제갈공명, 한신과 같은 뛰어난 선비와 대장군들이 세상에 나오느니라.

십승 대왕 우리 성주 양백 성인 나오시고 미륵세존이며 삼신대왕이신 삼풍도사가 출현하고 하늘의 운이 서기동래(西氣東來)함에 따라 금운(白虎運)이신 청림도사로 나오시고 목토(木兔=목운)가 정도령으로 거듭나니

피눈물 흘리는 가운데서 완성의 무극대도를 깨치고(血流通中=血運島) 하나님의 피가 전해진 해우반도의 사람들 중에서 나오신) 우리의 거룩한 스승으로 나오시고 계룡, 삼월(辰=춘말), 진(震=순진의진), 천강(天罡=북두칠성)이신 삼벽진인으로 나오시느니라.

육도삼략의 6도 81궁 금운(金運) 정도령을 말한다. 벽(碧)은 푸른 옥돌이며 왕

(王), 백(白), 석(石)으로 이루어진 글자로서 백색은 계룡백석으로 소사(素砂)와 같은 뜻이니 소사에서 영적 왕이 천지공사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본다. 금구(金鳩=금비둘기, 금운)와 목토(木兔=나무토끼, 목운)가 합한 진인 정도령도 궁궁(弓弓) 십승(十勝)에서 나오느니라.

이상의 격암유록의 예언과 같이 우리 조상님들은 이 세상의 죄를 모두 제거하고 인류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주인공인 구세주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렇게 조상님들이 고대하던 구세주는 마침내 가슴에 북두칠성의 별점을 가지고 1931년 신미생(辛未生)인 양피와 양의 달이 되는

음력 6월 그리고 별을 상징하는 28일 새벽 4시에 김포의 감정리(坎井里)에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다.

감정(坎井)이란 지명은 주역(周易)에서 감(坎)은 하늘을 상징하므로 감정(坎井)은 곧 『하늘의 우물』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륵부처님은 도솔천에서 하늘의 우물인 도솔천의 수미산정(須彌山井)을 통하여 인간계(人間界)로 하강(下降)하시어 하늘의 우물과 연결된 감정(坎井)리로 강림(降臨)하시게 되는 것이다.*

출처: 유튜브_진지아홍TV <https://youtu.be/ZPGDPKGoBs>



수미산도(須彌山圖)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39>

성경상의 열두지파와 단지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민의 국조(國祖)는 단군(檀君)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군이라고 불리는 것은 본래의 이름이 단(檀)인데 우리의 조상님들이 뒤에 임금 군(君)자를 붙여 단군이라고 불렀으며, 근래에 와서는 단군 할아버지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이 바로 조선을 세운 분이라고 하여 국조(國祖) 단군(檀君)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군은 과연 서자(庶子)일까요? 그리고 본래 태어난 고향은 어디일까요?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39>

이러한 의문에 대해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舊約聖經)인 창세기(創世記)에 우리가 흔히 단군이라고 불리는 『단(檀)』에 대해 나오는 기록이 있다. 즉 창세기 35장 23절에는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열두지파의 족장이 되는 야곱의 열두 아들에 대해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스블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중 빌하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중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단의 출생에 대해서 창세기 3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야곱의 본처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므로 라헬의 여중 빌하를 통하여 자식을 얻게 되는데 그가 바로 『단』인 것입니다. ※ 우측 「가계도」 그림 참조

『단』은 야곱의 열두 아들들 가운데 라헬의 몸종 빌하의 자식으로 태어난 5번째 아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이 열두 아들들의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함에 있어 다섯 번째 아들이 『단』에게는 열두 형제들 가운데 7번째로 예언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16절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도다』 하였듯이 심판권세(審判權勢)는 오직 하나님의 유업이므로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오직 『단』에게만 심판권세를 물려줬다면 『단』이 곧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있으므로 고대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시고 마귀가 방심하고 있는 그때 하나

님의 신(神)이 함께 하는 단지파를 마귀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옮겨 그 자손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에서도 단지파를 실종된 지파로 남겨 마귀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 분리작업을 비밀리에 시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패한 뒤 삼위일체였던 존재가 하나님은 탈출하였지만, 본래의 모습을 찾아 회복하여 인류와 우주만물을 구원하여 다시 본래의 예레뮌산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도면밀하게 작전을 짜고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즉 한국민족은 고대 이스라엘의 “단지파”가 동방의 동쪽 한국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鍾

